

## 사회주의경제강국의 징표

김길남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은 현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이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 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의 징표에 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자립경제강국, 식식경제강국이 바로 사회주의경제강국입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5페이지)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의 징표는 무엇보다먼저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자립경제강국이라는데 있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한 나라이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백방으로 강화되였을 때 사회주의경제강국이 건설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평가하는 관건적고리로 된다. 경제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조건에서 자립적이며 주체적인 경제를 가져야만 나라의 자연부원을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고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려 생산을 짹짹 할수 있으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자립성과 주체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경제를 가진 나라,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경제를 가진 나라만이 세계적인 경제파동이나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을 이겨낼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줄수 있다.

결국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확고히 보장된 사회주의경제강국은 다름아닌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되는 나라이다.

자립성과 주체성이 확고히 보장된 경제는 우선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부문구조가 갖추어진 경제이다.

부문구조가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갖추어진 경제는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중공업제품과 경공업제품, 농업생산물을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경제이다.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에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념원이다. 우리 인민의 이러한 념원을 실현하자면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모든 생산물들을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경제가 마련되어있어야 한다. 만일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면 그러한 경제는 자립경제라고 말할수 없다.

부문구조가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갖추어진 경제는 모든 생산공정을 기본상 자기 나라의 범위에서 완결할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경제이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생산물들은 원료생산으로부터 완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생산공정들을 거쳐 나오게 된다. 그런것만큼 이러한 생산공정들가운데서 어느 한 생산공정이라도 없거나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면 생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수 없으며 그러한 부문구조를 갖춘 경제는 자립경제가 아니다.

자립성과 주체성이 확고히 보장된 경제는 또한 자체의 기술과 튼튼한 원료, 연료, 동력기지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이다.

자립성과 주체성이 확고히 보장된 경제는 자체의 기술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이다.

자체의 기술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는 자기 나라에서 필요한 정보기술수단들을 자체의 정보산업과 기계공업에 의거하여 생산보장하는 경제이다. 기술수단들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한다면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는 경제를 건설할수 없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이 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들을 예측시키고 략탈하는 조건에서 기술적으로 자립하여야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보장할수 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잘되고 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따라서 발전된 기술을 주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립성과 주체성이 확고히 보장된 경제는 자체의 튼튼한 원료, 연료, 동력기지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이다.

자체의 튼튼한 원료, 연료, 동력기지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는 생산에 요구되는 원료, 연료, 동력문제를 기본적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경제이다. 생산에 필요한 원료, 연료, 동력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것은 자기 나라 경제의 명줄을 남에게 맡기는것과 같다. 그렇게 되면 민족경제를 안전하게 주동적으로, 전망성있게 발전시킬수 없으며 세계적인 경제파동에 쉽게 말려들어 경제를 파국에 몰아넣을수 있다.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는것은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핵적인 문제이다. 자기 나라의 원료, 연료, 동력에 의거하는 주체적인 공업을 창설하고 필요한 원료, 연료, 동력을 기본적으로 자체로 보장하게 될 때만이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민족경제를 가지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자립성과 주체성이 확고히 보장된 경제는 또한 자체의 민족기술간부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경제이다.

자체의 민족기술간부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경제는 나라의 경제가 자체의 기술자, 전문가들에 의하여 관리운영되는 경제이다. 자체의 민족기술간부가 있어야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특히 높은 기술로 장비된 인민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다.

만일 다른 나라의 기술자, 전문가들에게 의거한다면 경제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자기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관리운영할수 없다. 자체의 민족기술간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제를 가진 나라만이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확고히 보장된 경제강국

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의 징표는 다음으로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지식경제강국이라는데 있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이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 정보화되고 모든 생산과 경영활동이 정보적과정으로 전화되며 정보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부문들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사회주의경제강국이 건설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은 우선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된 지식경제강국이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징표로 된다.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다그치고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는데서 과학기술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경제강국을 건설할수 있다.

과학기술과 생산은 밀접한 련관속에 있지만 오래동안 서로 독자적으로 발전하면서 호상 작용하였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에서 노는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술과 생산은 점차 접근하고 밀착되게 되었다.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와 과학기술과 생산이 밀착되고 일체화되는것은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추세로, 현대산업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고있다.

기계와 기계기술이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던 기계제산업시대에는 과학과 기술이 분리되고 과학과 기술이 생산과 분리되어있었다. 따라서 기계제산업시대에는 직접적인 생산공정에서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육체로동만이 생산적로동으로 간주되고 과학연구사업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생산적로동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지식경제시대에는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비상이 높아지면서 과학과 기술이 밀착되고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된다.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는 생산과정을 단축하고 생산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며 경제장성과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함으로써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향상을 담보한다.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야 과학연구기관과 경제관리기관, 과학기술과 생산사이의 련계를 강화하고 그의 발전을 적극 촉진할수 있다. 현실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도입일반화하고 생산과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문제는 중요하게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야 성과적으로 풀수 있다.

지식경제의 하부구조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모든 부문에서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과 기술, 지식이 생산을 주도하는 경영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과 기술관리공정을 개발창조형으로 전변시킬 때 경제강국을 건설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은 또한 첨단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지식경제강국이다.

첨단기술산업은 지식경제의 기둥이다.

오늘 정보산업, 나노산업, 생물산업 등과 같은 첨단산업부문들의 발전은 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장성을 담보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로부터 매개 나라의 경제발전을 평가할 때 첨단산업이 경제부문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지표로 되고있다.

첨단산업을 중추로 하는 경제구조는 생산을 현대화하고 집약화하며 생산의 효과성을 크게 높인다. 그것은 첨단산업부문이 생산보장하는 생산수단의 리용에 의하여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에서 설비와 생산기술공정이 현대화, 정보화되며 제품의 질이 높아지고 생산물단위당 물자와 에너르기, 노동용량이 줄어들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첨단산업을 중추로 하는 경제구조를 확립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키는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만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외면하면서 첨단산업을 제때에 창설하지 않고 경제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낙후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을뿐아니라 발전된 나라들에 경제기술적으로 예속될수 있다.

현시기 생산과 경영활동을 비롯한 사회경제분야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설비들이 노는 역할이 비상히 강화됨으로써 첨단산업이 독자적인 산업부문을 이루게 되고 인민경제에서 자기의 뚜렷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의 징표는 다음으로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는 인민의 락원이라는데 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로 지향시켜나갈 때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들의 수요를 실현시켜주며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고 평등한 물질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인민의 락원이 사회주의경제강국이다.

인민들이 남의것을 넘겨다보지 않고 부러운것이 없이 잘살자면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는 경제를 가져야 한다.

사회주의경제는 철저히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건설되고 관리운영되는 인민적인 경제이다.

경제가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고 현대화, 정보화되어 물질적부가 많이 창조되어도 그것이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번영은 참다운 의미에서의 번영이 아니며 그러한 경제는 인민적인 경제로 될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강국은 마땅히 물질문화적생활수단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보장하며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서 아무런 불편도 모르고 남부럽지 않게 잘사는 나라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경제강국건설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을 옳바로 인식하며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과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면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기어이 인민의 만복이 꽃피나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워야 할것이다.